

새로운 조경수 자원개발의 필요성

이 창 우 / 전 남부임업시험장장

시대는 바야흐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 하였다.

개방화의 물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지만 특히 비중이 높은 공산 제조분야와 산업생산 기술분야에서는 당면한 국제화 시대의 도전과 시련을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 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정부와 관련단체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와중에서 토지 산업분야는 더욱 인력난 노동력 노화현상 노임상승 기술인력 절연상태로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농촌은 황폐일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야를 대내외적으로 돌아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개도국들의 생활환경은 산업화 공업화 광역도시화에 따라 각종 현대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사회가 각종 산업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는 누리고 있으

나 생활환경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모두가 절실하게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조경산업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지 겨우 20년의 성장과정에서 조경산업도 국제적 개방시대를 맞이 하여 환경 녹화 주역으로서 모든 지구촌의 환경미화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해야 할 역사적인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고 조경분야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원개발과 생산기술연마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40여년간 임업에 종사하면서 우리의 생활환경이 지나치게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볼때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공단과 확장되는 도

시 주변 녹화와 조경사업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생각한바 있어 우리나라 조경산업이 튼튼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조경산업의 국제화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응책 몇가지를 기술코저 한다.

1. 공해정화성 조경수 개발

생활환경림, 도시림 공단녹지대의 숲들은 대기오염과 산성우 등 각종 공해로 정상적인 기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 도시 녹화수종은 내공해 여부를 검정 후 조성한 숲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수종들이다.

금후는 염해 아황산가스 분진 같은 환경요인별 공해에 강한 새로운 수종들을 검정선발 하므로 공해정화성의 효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2. 새 수요지 대응수종 개발

국내외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간척지의 확장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같은 실질적인 입지조건에 적응할수 있는 내염 수종같은 새로운 조경수개발이 있어야 자원 인력 자금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3. 조경수자원 다양화

나무마다 형태, 수성, 개화, 결실, 번식력, 미적가치가 각기 특색이 있기 때문에 조경수는 그 종류가 많을수록 보다 계절미와 미의식을 돋을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존 관상수내지 조경수를 위주로 보급해 왔으나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고 더 많은 유망수종 자원개발이 요망된다.

근간 산림수종중 자귀나무, 자작나무는 도시공원과 정원수로 이미 자리를 잡았고 때죽나무, 층층나무, 물푸레, 함박꽃나무, 노각나무같은 특색있는 수종은 개발대상수종으로 주목할만 하다.

4. 조경수의 국제적 교류

국제적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조경수종중에서 수출 또는 교류대상국의 기후풍토가 비슷하고 별로 땅을 가리지 아니하고 생장이 빠르고 병충해에 강한 수종으로서 은행나무, 느티나무, 반송, 매화나무, 자귀나무, 벗나무, 자작나무등속이 국제교류 수종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도입조경수로서 우리나라에 귀화된 수종으로는 마로니에, 히말라야시다, 네군도단풍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자생수목으로서 미국에 수출되어 식물원 및 조경수 판매회사에서 재배 및 판매되고 있는 수가 무려 119종이나 된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 야생금잔디가 1950년대에 미국 백악관 정원에 심어져 인기가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만하다.

5. 후계자 양성문제

각종 생산분야에서 생산기술과 관리기법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있어서는 반드시 후계자가 있어야 계승 발전할수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와 같이 날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다양한 정보에 의한 기술적인 관리기법이 요망되는 현시점에서 튼튼하고 건전한 후계자가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조경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맺는말.

현대 새로운 과학기술개발은 한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팀웍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조경산업이 활성화되고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조경수의 새로운 자원개발과 생산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연구개발

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이 당면과제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産) 학(學) 연(硏)의 공동연구가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 제조분야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주창한 나머지 『산 학 연 협동연구개발 입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고 한다.

이 생산적인 입법이 빛을 보는 날 조경산업분야에서도 산, 학, 연의 협력체제로 새로운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룩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자생적인 활동으로서 국제간의 생산기술정보 교류와 더불어 현업자와 후계자가 국제간의 연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국제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튼튼한 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